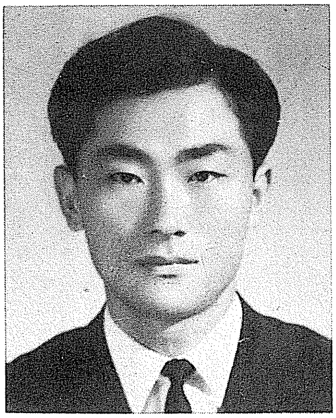
# 내외소식

## 김 차봉 형제 논문 발표

현재 동부 지부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면서 연세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 차봉 형제는 지난 1 월 수질오염과 그 대책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여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 1 월 15 일자 서울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인용한다.



### 어릴때 부터 필요 일깨워

延世大 연구소 건의

**공해 과목…학계의 의견**

공해 교육의 실시는 그동안 학계에서도 계속주장해왔었다。연세대(延世大)공해연구소(소장 權肅杓교수)는 최근 金次峯씨등 연구원의 논문을 토대로 다각적인 공해교육방안을검토, 문교부에 구체적인방안을 건의했었다。

金次峯씨는 「수질오염의 영향과 대책에 관한 연구」논문에서 『공해문제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당면과제(當面課題)의 하나로 부각(浮刻)되었음에도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과서와 대학의 교육과정에서는 공해에 관한 귀절(句節)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 『교육을 통해 공해문제의 심각성을 폭넓게 인식시키고 그 대책을 연구토록 해야할 싯점(時點)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국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공해문제가 있다는 정도는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중·고교에서는 생산과 공해의 기초적 문제를 이해시키고 대기(大氣)·물·토지의 사용에 대해 새로운 사고방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에서는 적어도 교양과정을 통해 모든 대학생에게 공해발생의 원인과 영향을 깊이 분석토록하여 공해문제의 새로운 대책과 새로운 정책을 구상(構想)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金씨는 또 대학원에 공해학과 내지는 환경대학원을 설치해 전문가를 양성하는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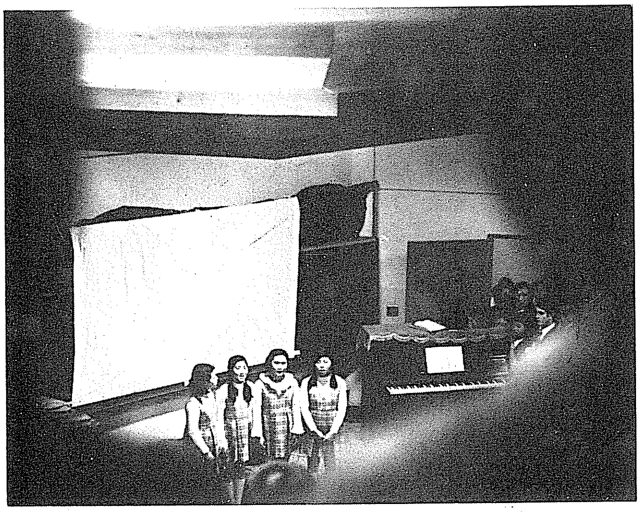
이들 전문가가 증가함으로써 『산업입국(産業立國)을 하자면 공해가 뒤따르고 공해를 막자면 산업입국을 포기할수 밖에 없다』는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과제를 극복, 산업입국을 하면서도 공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서울 동 지방부 상호 향상회, 통합 병원 위문 공연

지난 2월 9일 서울 동 지방부 상호 향상회에서는 김포 가도에 자리잡은 국군 통합 병원을 방문 전상 장병들을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텐더 애플스 합창단을 포함하여 약 50여명이 참석하여 가진 위문 공연은 텐더 애플스 합창단의 발표로 시작하여 무용, 마술, 다함께 노래 부르기, 영화 감상등 다채로운 프로로 그들을 위로했으며 250여명이 관람하였는데 특히 텐더 애플스 합창단이 순서가 끝날때마다 환성을 올리곤 했다.

특히 영화 "행복의 추구"는 그들에게 생의 의미를 심어주는 뜻 깊은 계기가 되었다.



### 병상의 장병에 즐거운 노래선물

국군수도통합병원 찾은 **말일성도예수교인들**

○‥ 국군 수도통합병원에 입원중인 병상의 장…○
○…병들은 지난 9 일 『빠른 시일내에 완쾌를…○
○…비는 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회 회원들…○
○…의 정성어린위문을 받고 잠시나마 동심의…○
○‥ 세계로 돌아가 시름을 잊을수 있었다. …○

진중 미담

지난9일 밤7시 국군 수도통합병원 강당안을 꽉메운 병상의 장병들은 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회 서울동지부 상호향상회가 베푼 위문공연에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정성과 사랑의 위문공연을 베푼 후방의 정에 감사해 했다.

동교회 서울동지방부 상호향상회가 주관하여 약 1시간30분 동안에 걸쳐 진행한 이날 위문공연에는 동교회 주한선교사로 활약하고 있는「브라운」박사를 비롯, 연세대학교 치과대학교수 최옥환박사, 「텐더·에이쥬즈」합창단원 17명, 일반회원 40여명이 참가, 장병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가졌다.

최옥환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위문공연은「브라운」박사의 인사말에 이어「텐더·에이쥬즈」합창단원들의 합창, 『장병들과 함께 노래부르기』, 일반회원들의 4중창, 『행복의 추구』영화상영등으로 진행되었으며 『고향의 봄』합창을 끝으로 약1시간 30분만에 끝났다.

이날 위문공연에서「텐더·에이쥬즈」합창단원들의 다양한「레퍼터리」와 율동한 노래솜씨는 장병들의 인기를 끌었으며 우뢰와 같은 박수갈채는 강당안을 떠나갈듯 만들었다.

### 해마다 찾아와 장병 위문

다채로운 노래로 흐뭇한 한때

### 빵 1천봉지·책자등 전달

「텐더·에이쥬즈」의 이영범양(18·서울여상)은 『나라와 겨레를 지키다 몸을 다친 국군아저씨들을 직접 찾아뵙고 노래와 무용으로 잠시나마 즐겁게 해드릴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말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장병들의 뜻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하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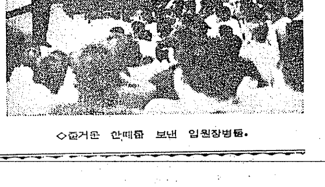
또한『그린·그린』『서울의 찬가』『갑돌이와 갑순이』등 곡목으로진행된『다같이 노래부르기』는 장병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보여 강당안은 뜨거운 열기를 조성하기에 충분했다.

이날 위문공연이 끝난후 동교회에서는 미리 준비해온 빵1천봉지와 성도의벗등 책자를 장병들에게 일일이 전달했다.

한편 위문공연을 주관한 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회 서울 동지방부 상호향상회담당 평의원이기도한 최옥환박사는 『병상의 장병들이 하루속히 완쾌되어 유신의 역군으로 개선, 진군할수 있도록 주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말하고 『앞으로도 자주 기회를 가져 군·민유대강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최박사는 지난63년부터69년까지 국군수도통합병원의 치과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장병진료에도 헌신해온 경력이 있으며 이것이 인연이 되어 매년 연말연시를 맞아 장병들을 위문하고 있다.

그런데 동교회 상호향상회는 ①젊은이를 위한 자진향상 ②국가와 사회에대한 봉사활동을 기본「모토」로 여러가지 교회사업을펴고 있는데 이번 수도국군통합병원 위문은 군·민유대방안의 하나로서 앞으로 폭넓은 위문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즐거운 한때를 보낸 입원장병들.